

## ‘동맹미래’ 학술회의 초청장

한미동맹은 현재 기로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으로 여기며 이를 해소하면 남북 평화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고, 동맹 대신 역내 다자안보로 우리의 번영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자주와 민족 코드가 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동맹을 경시하는 분위기와 함께 기술발전과 전략사상 변화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고려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패권 도전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이 새로운 냉전을 촉발하면서 미중사이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동맹보다 균형을 주장하는 담론이 강한 형편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비핵국가인 우리를 위협하고 이를 억제하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 핵전력 개발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미중냉전 2.0, 핵무장의 북한 그리고 국내정치의 세가지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맹미래’ 첫 학술회의를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향후 정기적인 모임 형태의 프로세스로 발전하여 ‘동맹미래’의 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동맹미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답을 찾을 예정입니다.

- 
- Q1.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인가?
  - Q2. 냉전동맹을 해소하고 다자안보로 가야하는가?
  - Q3. 한미동맹을 해소하면 남북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가?
  - Q4. 냉전 2.0시대, 미중 균형외교는 가능한가?
  - Q5. 중국의 지역패권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이익인가?
  - Q6. 미중역전은 불가피한가?
  - Q7.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 Q8. 미국의 신정부 대외정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 Q9.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 Q10. 북한과 북핵문제를 한미공조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Q11. 냉전 2.0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동맹미래’ 학술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참석인원 수를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공감한반도연구회 이메일 [empkorea2018@naver.com](mailto:empkorea2018@naver.com)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주 제 : 미국 신정부출범과 동맹도전
- 일 시 : 2020.12.7.(월) 14:00~18:00
- 장 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 A회의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지하1층)
- 주 최 : 공감한반도연구회, 국회의원 신원식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국민 의례
14:05-14:10 (‘5)	[개회사] 윤덕민(공감한반도연구회 대표, 前 국립외교원장)
14:10-14:15 (‘5)	[인사말] 신원식(국민의힘 국회의원)
14:15-14:35 (‘20)	[주제발제] 저널리스트가 본 동맹의 현주소: ‘동맹 표류와 세가지 도전’ 유지혜(중앙일보 기자)
14:35-16:15 (‘90)	[1세션] 동맹도전,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김홍균(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li> <li>■ 패널: 김태효(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재우(경희대학교 교수)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정엽(세종연구소 연구위원)</li> </ul>
16:15-16:30	휴식
16:30-18:00 (‘90)	[2세션] 냉전2.0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김성한(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li> <li>■ 패널: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신각수(세토포럼 이사장) 조태용(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재호(서울대학교 교수)</li> </ul>
18:00-	만찬